

# ‘경제활동 재개’ 비대면 등 美 성장주 주춤... ETF 관심집중

작년 실적 기저효과 이익전망 둔화  
아마존·페이스북 등 성장둔화 예상

“연말, 델타변이 리스크 해소편  
장기금리 완만한 반등세 가능성”

미국 증시 상승장을 이끌어왔던 성장주들이 주춤하면서 가치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중국의 부동산기업인 헝다그룹 파산 위기 충격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8% 하락한 3만3970.4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70% 내린 4357.73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로 구성된 나스닥 종합지수는 330.07포인트(2.19%) 떨어진 1만4713.90으로 장을 마치며 충격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이후 최대 낙폭이다.

21일(현지시간) 다우지수와 S&P 500지수의 낙폭은 줄고 나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당분간은 성장주 밸리를 낮출 만한 요인이 더 많은 상황이다. 먼저 델타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지

〈미국 가치주 및 경기민감주 ETF 리스트〉

티커	ETF 명	투자대상	3개월 수익률	연초 대비 수익률	총자산(백만달러)	운용보수
VTV	Vanguard Value ETF	가치주	1.63%	15.24%	8만2144.531	0.04%
KBE	SPDR S&P Bank ETF	은행	-0.66%	18.92%	2940.095	0.35%
VHF	Vanguard Financials ETF	금융	1.85%	25.30%	1만449.550	0.10%
IFRA	iShares US Infrastructure ETF	인프라	-3.63%	14.12%	659.774	0.40%
XLE	Energy Select Sector SPDR ETF	에너지	-7.80%	29.11%	2만2021.610	0.03%
XLB	Materials Select Sector SPDR Fund	소재	-0.78%	10.87%	7516.36	0.03%
XLI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Fund	산업재	-0.12%	12.11%	1만6979.039	0.03%
XLY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SPDR Fund	소비재	4.02%	12.41%	1만9758.420	0.03%
JETS	US Global Jets ETF	여행/항공	-11.55%	1.30%	3342.851	0.60%

(검색 기준일: 2021년 9월 22일 /자료=블룸버그)

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비대면 수혜를 입었던 기술주나 백신주의 상승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르코 콜라노빅을 비롯한 JP모건 연구원들은 투자자 노트를 통해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경기민감주 비중을 높일 것을 추천했다. 연구원들은 “델타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약해지고 있다”며 “델타변이 완화와 함께 리오프닝(경기 재개)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서 리오프닝주의 상승률이 두드러질 것(아웃퍼폼)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탓에 기저효과

로 이익전망도 둔화되는 추세다. 아마존은 이미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페이스북도 하반기 매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리 상승 가능성도 부담이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로 갈수록 델타변이 확산세 등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장기 금리 역시 완만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 기술주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춤하는 성장주 대신 시장의 눈길을 끄는 건 가치주와 경기민감주로 구성된 ETF다.

미국의 가치주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는 밴드가 운용하는 VTV(Vanguard Value ETF)를 들 수 있다. 이 ETF는 버크셔 해서웨이(2.98%), JP모건체이스(2.83%), 존슨앤존슨(2.67%),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2.30%) 등을 담고 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22.5%), 헬스케어(20.2%), 소비재(14.5%), 산업재(12.6%) 등 가치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운용하는 XLY(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SPDR Fund)는 경기소비재를 담고 있는 ETF다. 아마존(22.57%)과 테슬라(14.91%) 외 홈디포(8.86%), 맥도날드(4.56%), 나이키(4.30%), 스타벅스(3.36%) 등을 고루 편입하고 있어,

연말에 소비 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공원배 KB증권 연구원은 “경기소비업종은 코로나로 인한 이익 훼손이 크고 회복세도 더뎠지만, 델타변이 확산세가 둔화돼 소비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익 전망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부진한 주가 수익률로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타 업종 대비 매력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블랙록이 운용하는 IFRA(iShares US Infrastructure ETF) 또한 향후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IFRA는 자재, 산업, 기계, 도로와 철도, 유틸리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상위 편입 종목은 엔링크 미드스트림(0.87%), PG&E(0.83%), PNM리소시스(0.79%) 등이다.

김 연구원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인프라 관련 업종, 금리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은행 업종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며 “관련 ETF인 인프라 업종의 IFRA, PAVE 등과 금융업종의 VFH 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영규 기자 noon@metroseoul.co.kr

## 9월 넷째주 전국 9곳서 3444가구 청약

### 분양 캘린더

건본주택 3곳 개관, 5곳서 당첨 발표

9월 넷째 주 분양시장은 추석연휴를 맞아 숨고르기가 예상된다.

22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3444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주상복합·영구임대·국민임대 포함,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서울 중구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힐스테이트 남산’의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동두천중앙역 엘크루 더퍼스트’ 오피스텔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대전 동구에서는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건본주택은 3곳에서 개관하며 당첨자 발표는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 등 9곳, 계약은 ‘한화 포레나 수원원천’ 등 5곳에서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 SK바사, 백신 CDMO시장 고성장 기대

신한금융투, 목표주가 35만원 제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대표 백신기업에서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업체로 부상하는 데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의 고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5만원을 새로 제시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최대 백신 연구개발(R&D) 센터를 바탕으로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대표 백신기업에서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업체로 변화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백신 생산시설인 L하우스는 모든 형태의 완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획득, 2021년 국내 백신기업으로는 최초로 EU GMP를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보유한 백신 기술 플랫폼과 L하우스의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0년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백신 AZD1222의 원액 및 완제 위탁생산계약(CMO)을 체결했으며, 노바백스의 코로나19백신 NVX-CoV2373의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백신 CDMO 사업과 더불어 현재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백신 CDMO 시장이 가속화하는 것도 호재다. 글로벌 백신 CDMO 시장 규모는 2019년 12억5000만달러에서 코로나19백신 생산이 본격화된 2021년 14억900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에선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DL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업계 1위 수성

대형 건설사 하반기 정비사업 경쟁  
지난달 5351억 북가좌6구역 등 수주  
이어 GS·포스코·현대·대우 건설 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하반기 정비사업장에서 기회를 엿보며 수주액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달 총 공사비 5351억원 규모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을 수주한 데 이어 이달에만 구로구 공동 월드빌라(소규모)와 한양빌라(가로주택), 부산 구서3구역(재건축) 등을 수주하며 정비사업 수주 1위로 올라섰다.

DL이앤씨는 올해 전국에서 총 10건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는데,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단독 수주인 점이 눈에 띈다. 현재 수주 총액은 2조6587억원이다.

그 뒤는 GS건설이 이었다. GS건설은 전국에서 총 10건, 수주 총액 2조6468억원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재개발을 현대엔



DL 사옥 D타워 돈의문.

/DL이앤씨

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주했다.

3위는 지난달 대전 성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총액 2조6150억원을 기록한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노량진3구역에 집중하고 있다. 노량진3구역은 이달 중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입찰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의 상대는 직전 대전 성남3

구역 입찰 당시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GS건설이 거론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장으로 불리는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 일찌감치 수주액 3조원을 넘기며 1위를 달성했던 현대건설은 올해 총액은 현재까지 9개 사업지, 2조3375억원으로 4위를 기록 중이다.

대우건설은 전국 8개 사업지에서 수주해 총액 2조1638억원을 기록하며 5위를 차지했다. 대우건설은 연초부터 흑석11구역과 상계2구역 등 서울 주요 사업지를 수주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는 노량진5구역에 입찰할 상태다. 노량진5구역은 현재 대우건설과 쌍용건설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노량진5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0-3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27가구 및 부대복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지에 하이엔드 주거브랜드를 적용한 ‘써밋 더 트레시아’를 쌍용건설은 ‘더 플래티넘’을 제안할 방침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 키움증권, 하반기 제6기 고객패널 모집

소비자와 소통 일한... 내달 6일까지

키움증권이 금융소비자와 소통하면서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제6기 고객패널’을 오는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 고객패널제도는 회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해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 창구 역할로 키움증권은 금융소비자보

호 및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자 올해부터 고객패널제도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고객패널은 키움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패널로 선정된 고객은 다음달부터 1개월간 키움증권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고객패널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 우수 제안에 대하여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에게 시상되며 선정된 고객패널 전원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객 패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패널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경청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인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